

## 남태평양 피지 선교 최병옥 정나영 인사드립니다.

### 5월 8일 피지 입국 후 경과

작년 라오스로 떠나기 전, 우리 가족의 손 때가 묻은 모든 가구와 전자제품을 이웃에게 내놓고, 여행 가방 들고 피지를 떠났어요. 8개월 간 라오스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사역 할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장기 비자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살아야 현지인들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제자 삶은 삶은 지상 최고의 가치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최선입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5월 8일에 피지에 재입국하여 기거할 곳이 없었을 때, 주님은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저희가 머물 집을 준비해주셨습니다. 2주간 나시카와 비전칼리지의 Gustom에 머물며 저희가 지낼 집을 알아보고 막내 딸 지혜의 학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곳 피지는 자기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기에 당장 차가 필요했어요. 오랜 친구이며 저희를 지원해주는 형제가 오래 전 보내 준 차량 헌금이 있었고, 상태가 좋은 2015년 도요타 Succeed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요긴하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척한 YWAM 베이스 앞에 방2개 월세집을 구하고, 딸은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이기에 외국인 학생은 지혜가 처음이라고 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신기하게 지혜를 바라보고 친절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지혜도 피지에서 자란 아이이기에 이곳 피지인 학생들이 편한가 봅니다. 다만 학교의 모터 펌프가 고장나서 화장실 변기 물이 나오지 않아요. 화장실 문짝도 제대로 닫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학교 옆 외진 곳에서 일을 보나 봅니다. 지혜는 정말 급하면 몰래 선생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요. 거기는 가끔 쭈쭈물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 베이스 주변은 현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담장도 없는 집들이기에 외국인이 이곳에 산다는 것은 큰 용기와 모험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주어진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낡은 시골집이지만 2주 동안 바닥과 벽과 창과 서랍장 등 빈대 살충제를 뿌리며 청소하고, 변기에 묽은 염산을 부어 닦아내고, 집안이 어둡기에 형광등을 추가로 달고, 찢어진 모기장

을 고쳤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불과 식기류를 빌려주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1달이 지난 지금 은 집에서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방2개 집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은 인도인 다섯 가구가 하나의 모터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사용해요. 전기세도 공동으로 내는데 삼일 동안 모터 펌프가 고장났다가 어제서야 다시 물이 잘 나오네요. 불편 하지만 월세를 아끼면 다른 일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피지는 남반구이기에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산골이기에 밤과 아침에 제법 춥습니다. 한국의 따스한 온수기가 생각나네요. 내일은 저렴하지만 따뜻한 이불이라도 구입하려 합니다.

집 바로 옆에 밭이 있고 아침 일찍부터 소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가 보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네요. 조만간 인도인 아저씨 집에 가봐야겠어요.

## 사역 이야기

저희가 개척한 이곳 피지 ywam 베이스는 피지의 싱가포르라는 지역에 있어요. 저는 베이스 대표로서 주로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피지에 오자마자 원주민 제자 훈련 학교 등록 서류를 만들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YWAM 대학교에 서류를 보내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YWAM 대학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받습니다. 총 20학점이 인정되요. 또한 8월에 열리는 선교사 훈련 학교의 행정 업무도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오는 선교학교장 부부의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피지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그 밖에도 해외에서 오는 학생의 비자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저희 베이스 재정 업무와 본부에 제출하는 사역 보고가 있구요. 우편물과 베이스 건물 보수나 관리도 봐줘야 해요. 매주 사역자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사역자 지원과 사역자와 학생들 가정의 문제도 돌보는 것 저의 업무입니다. 제자훈련학교에서 강사로도 섬기고 있어요, 피지 오자 마자 1주간 강의를 했습니다. 쓴뿌리 치료와 용서, 관계와 리더십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뭐든 요청하면 가르칩니다. 이번 주는

전도 여행 실재와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려 해요.

저희 베이스에는 10년 전에는 노숙자였다가 지금은 어엿한 베이스 리더로서 아내와 다섯 자녀를 둔 Latu가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원주민 제자훈련학교는 그의 아내인 Va가 처음으로 학교 리더가 되어서 섬기고 있어요. 부부가 모두 신실한 사역 리더로 성장했음을 봅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젊은 두 자매가 있어요. Lusi(23세)와 Alice(21세)는 친 자매입니다. 자매들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피지의 람바사라는 지역의 YWAM 선교회에서 평생을 사역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 루씨 엘리스 자매의 어머니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먼저 돌아가셨고, 3주 전에 아버지 마저 말기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YWAM에서 장례비를 돕고 음식을 준비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고아가 된 두 자매를 제 가족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자매가 함께 지낼 방을 잘 꾸며서 오면 편하게 있게 하려 합니다. 두 자매가 그동안 자신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부모님을 잃었기에 제가 두 자매에게 필요한 재정을 추가로 후원해야 해요. 그동안 매월 1인당 6만원을 지원했었어요. 저는 모든 원주민 사역자들에게 1인당 매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Latu의 가정에는 자녀 양육비까지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월세와 사역비 등을 합치면 매월 평균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의 식비도 보내주어야 하는데 베이스 지원을 멈출 수도 없어요. 멈추면 사역도 멈춰요. 적은 재정을 아껴 쓰며 돈이 없어도 말도 안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현재, 원주민 제자훈련학교가 12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피지 학생과 1명의 인도인 학생이 참여하고 있어요. 학비를 제대로 내는 학생이 없어서 일주일에 삼일은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며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가능한 대로 쌀과 밀가루와 부식을 사주지만 피지 물가도 두 세배로 오르고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학생들이 거리로 개인 전도 실습하러 나갔어요. 다음 주면 두 달간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베이스 사역자였던 안나자매는 대만 ywam에서, 아이삭 형제는 뉴질랜드 ywam에서, 사라 자매는 야사와 섬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재정 지원은 못하고 있어요) 조비 형제가 현재 길을 잃었어요. 목사인데 택시 운전하며 살 길을 찾네요. 안나와 조비는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로 자랐어요. 그렇게 저와 만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베이스에서는 사역으로 제자훈련학교 이외에도 3개월짜리 성경연구학교와 인도인 마

을 초등학교 사역 그리고 피지 빌리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매주 하고 있어요. 지역 개척 교회 봉사도 매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는 Koh라라는 병원 선박과 해외에서 오는 선교팀과 함께 섬 선교를 합니다.

## 가정 이야기

저는 하복부 양쪽에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몇 년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국에 가면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아내는 저혈압이 있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들 은평이는 한동대 4학년입니다. 여름 방학에 학교에서 계절 학기를 하며 학교 기숙사에 있기로 했어요. 한나도 한동대 4학년이구요. 학교에서 일본 영어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뽑혀서 학교 지원으로 일본에 갔어요. 은겸이는 서울의 서대문교회 학사에 있으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탈북민 봉사도 하며, 연세기독교학생회에서 가는 대만 선교 여행을 선배들의 지원으로 8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막네 지혜는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자녀 국가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되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달에 한 아이당 50만원을 식비와 교통비,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은겸이만 학사비로 10만 원을 더 주구요. 학식비도 올라서 한 끼에 4, 5천원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 기도제목

1.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눔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 성령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가정 자녀 되게 하소서.
2. 여름 방학을 맞이한 은평이 한나 은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며,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알고 성숙한 성품을 소유한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3. 피지 원주민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 5명의 헌신 된 청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2달간의 전도여행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3백만원)
4. 8월의 선교 훈련 학교, 인도인 초등학교 사역, 원주민 마을 어린이 청소년 사역, 개척 교회 지원 사역, 병원 선박 협력을 통해 남태평양과 피지에서 헌신 된 주의 백성들이 일어

나게 하소서.

5. 저희의 베이스 사역자 가정과 자매들에게 필요한 베이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사역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소서. (매월 평균 80만원)

6. 저희 자녀들의 식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 필요와 여름 방학 선교여행 비용을 채워주소서.

7. 싱가포르 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공사 및 워터모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은혜 주소서.

8. 저희가 사용하는 베이스 집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강의실을 다른 이에게 임대해주겠다고 하네요. 이사를 가야할 지 월세를 올려주어야 할지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저희 거할 곳을 예비해 주세요.

9. 앞으로의 10년의 사역을 위한 팀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최병옥 정나영 선교사 드림

Director of YWAM-Youth Center

메 일 : [mercybo@empas.com](mailto:mercybo@empas.com)

전 화 : (679) 932 0478

후 원 : 국민은행 203 24 0471 172 최병옥